

主題

#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 정장호

## 차례

- I. 정보통신산업 현황
- II. 국민 소득 2만불을 이끌 IT산업의 과제

한국의 정보통신산업은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불과 20년 전인 80년대까지만 해도 통신장비 국산화와 인프라 등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정보통신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가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휴대 전화를 비롯하여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기 등이 일본, 미국 등과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의 정보통신산업은 어떤 모습인가. 또한 그동안의 급성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본 고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 본다.

## I. 정보통신산업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 정보통신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산업화에 뒤쳐진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미래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고자 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90년 대 전전자 교환기(TDX)와 광 장비의 국산화 성공을 통한 인터넷 시대의 기반 마련이나 90년대 무선통신(CDMA) 기술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하여 이동통신 선진국 시대를 열은 것 등이 모두 정부 주도의 정책 하에서 이루어 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후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국가 경쟁력은 현재까지는 빠른 성장을 해 왔다. 뛰어난 분야에서는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하며 오히려 선진국에 수출은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서도 많은 영향을 주면서 성장했으며, 선진국과 격차가 벌어졌던 분야도 점차 그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다.

〈표〉 주요 정보통신기기 수출·내수 동향

구분	수출(백만불)				내수(십억원)			
	2003	증감율(%)	2004.10 (누계)	증감율(%)	2003	증감율(%)	2004.10 (누계)	증감율(%)
			(누계)				(누계)	
휴대폰	13,355	36.5	15,219	42.7	5,555	18.7	5,124	14.7
위성방송 수신기	791	18.8	869	42.3	573	80.8	542	23.2
컴퓨터	1,539	-7.5	679	-47.2	4,612	-1.4	3,455	-7.4
모니터	5,667	23.5	6,022	32.6	1,713	50.8	1,676	23.3

자료 : ELAK(내수), 관세청(수출)

한편 최근 정보통신산업은 기술 분야에서 특정한 한 분야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 분야를 초월하는 크로스오버(CrossOver

) 현상과 컨버전스(Convergence)가 트랜드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는 그동안 거대 시장으로만 인식했던 중국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존재로 커져 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띠는 변화로 짚어볼만 하다.

정보통신산업을 대표할 분야별 산업 현황을 2004년을 중심으로 알아 보자.

## 1. 인터넷 산업

인터넷 산업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장했다.

국내 인터넷인구는 지난 94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2004년 3000만명을 넘어 3067만명을 기록, 국민 10명 중 7명꼴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도 100명당 24.5명(2004년 10월 기준)으로 2003년에 이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게임의 경우 지난해 7541억원의 매출을 올려 60%의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해에는 처음으로 매출 1조 시대를 돌파, 1조93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인터넷 기업들의 화두는 '대기업의 인

터넷 사업 진출'과 기존 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 소식, 하반기에는 휴대 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 선정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그동안 인터넷 기업은 벤처 기업 위주의 업체들이 중심이었으나 2004년에는 KT와 SKT가 인터넷 포탈업체로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판짜기에 들어 갔다. 또한 기존 포탈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적으로 시도한 한 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미국 라이코스를 인수하면서 미국 시장을, NHN은 게임을 핵심 품목으로 동남아 시장 점령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05년 상반기에 사업자가 선정될 휴대 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는 전파식별(RFID), 홈네트워킹 등과 함께 차세대 핵심 인터넷기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와이브로 서비스는 상용화 이후 시점부터 3년 만에 571만 가입자를 기록하고 5년 후에는 855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 해 인터넷 콘텐츠 분야에서는 디지털음악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대표적인 무료 음악·P2P 사이트인 벅스·소리바다의 유료화 추진 소식과 함께 수많은 업체가 디지털음악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까지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업계의 올해의 화두는 불법 복제 방지와 소비자의 공짜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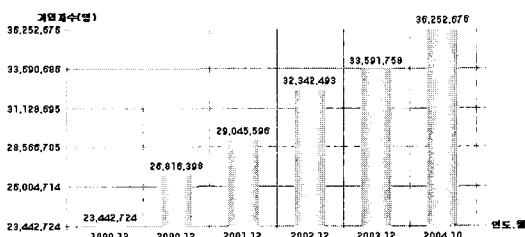
를 바꾸는 것이 될 예정이다.

## 2. 이동통신산업

2004년 가장 변화가 많았던 정보통신산업은 아마도 이동통신산업일 것이다.

이미 가입자는 3천 6백만을 넘어서 포화 상태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은 끊임없이 출시되었으며, 특히 카메라와 MP3등 엔터테인먼트 기기와의 컨버전스 양상이 눈에 띄게 두드러진 한 해였다. 또 대기업은 첨단 휴대폰의 수출 증가와 해외에서의 이미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사상 최고의 해를 보낸 반면, 중견 이하 기업은 심한 한파를 겪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스마트폰, 위성 DMB폰, 지상파 DMB폰 등 차세대 단말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국내 이동전화 가입자 수



※ 자료 정보통신부

업체별 2004년의 성적표를 살펴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올해 3분기 각각 시장점유율 13.8%, 7%를 기록해 모토로라와 소니에릭슨을 제치고 수량과 매출 부문에서 세계 2위, 5위로 뛰어올랐다. 반면 텔스전자·세원텔레콤 등 중견 기업들은 법정관리 신청을 하거나 들어가면서 죄악의 한 해를 보냈다.

대신 브이케이·이지엠텍·이노스트림 등 신흥 벤처기업과 SK텔레콤·KTF테크놀로지스 등 통

신서비스 관계사들이 선전하면서 신흥 중견기업으로 떠올랐다.

2004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번호이동성제도’의 시행이었다. 번호는 그대로이면서 사업자를 바꿀 수 있었던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한 달 평균 판매량이 200만대에 육박했으나 하반기에 사업자의 클린마케팅 선언과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물량 조정의 영향으로 지난 10, 11월 평균 판매량은 80만대 이하로 떨어지며 뒷심 부족을 드러냈다.

올해 국내 휴대폰 시장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16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삼성전자는 여전히 내수시장에서 50%를 유지하며 선전했다.

품목별로는 카메라폰이 폭발적인 수요팽창에 힘입어 세계 단말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확대됐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내수에서의 카메라폰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밖에도 MP3를 장착한 휴대폰과 함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의 휴대폰이 선보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휴대폰의 수출 동향을 살펴 보면 2003년 대비 2004년의 수출은 CDMA 방식은 14.8% 감소한 반면 GSM 방식은 동월 대비 67.6% 증가세를 보이며 선전했다.(2004년 8월 기준)

이는 중국과 유럽 등 GSM 시장 공략에 나섰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4년 8월까지의 총 휴대폰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8.6%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4년 휴대폰 업체들의 선전은 올해 휴대폰 업계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다.

국내 시장은 보다 많은 업체들이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예정

(표 이동통신단말 수출 동향)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3			2004			등감률	
	합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전년동월	1~8월
CDMA	5,771.8	581.2	3,519.9	540.0	495.3	4,379.5	-14.8	24.4
GSM	7,699.7	672.7	4,382.2	1,162.2	1,127.5	8,107.3	67.6	85.0
TDMA	129.5	10.0	88.3	3.6	5.9	36.6	-41.6	-58.5
기타	746.9	50.1	527.6	22.3	60.7	351.4	21.1	-33.4
단말 합계	14,347.2	1,314.1	8,518.0	1,728.1	1,689.4	12,874.8	28.6	51.1

자료 : IIITA 정보조사분석팀, 한국관세무역연구원

이다.

그동안 SK 텔레콤에만 물품을 공급하던 에스케이(SK)텔레텍과 모토로라가 피시에스(PCS)폰 시장에도 진출하는 한편 국외시장에만 주력하던 팬택도 국내용 단말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또 이미 한차례 국내 시장 진입에 패배를 맛본 노키아가 다시 재기를 꿈꾸며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단말기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혀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국내 휴대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소식은 과연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웰컴으로부터의 독립이 가능해질 것인가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는 화상통화용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단말기에 자체 개발한 3세대용 칩의 장착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2.5세대인 CDMA-1x 칩을 자체 개발해 케이티에프용 단말기 등에 장착한 바 있다.

LG전자 역시 3세대 이후에는 자체 칩을 쓸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렇게 자체 칩 개발에 힘을 쓰는 이유는 일본업체들과의 경쟁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그동안 자체 개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착을 꺼려왔으나 이번을 계기로

보다 경쟁력 있는 제조업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통신장비 시장은 지난 20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강,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2004년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통신장비업체들은 한계에 달한 내수 시장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다. 우전시스텍, 다산네트웍스 등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의 일본, 중국 진출 등이 두드러졌으며 삼성전자와 국내 벤처기업들이 공동으로 이뤄낸 BcN 장비의 해외 수출건도 세계 시장에서 국내 네트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한 폐거라 할 수 있겠다.

아울러 지멘스의 다산네트웍스 인수나 노텔과 LG전자의 합작법인 설립 추진 등도 높아진 국내 통신장비회사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 3. SI·SW

한때 황금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어 출혈 경쟁으로 이어진 SI 산업은 IT 경기 침체와 공공·민간 부문의 정보화 투자 위축으로 극심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IDC 한은선 책임연구원은 '한국IDC 월례

브리핑'에서 국내 IT 서비스 시장은 지난 해를 정점으로 완만한 성장 기조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한편 국내 IT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 SI업체 및 다국적 IT업체들의 시장 공략이 한층 강화되면서 시장 구도의 양극화가 심화돼 시장 구조조정 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SDS를 비롯한 대형 SI업체와 한국IBM, 한국HP 등 매출 기준으로 상위 5개 업체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평균 11.5%인 데 비해 포스데이터와 현대정보기술, 쌍용정보통신 등 매출 기준으로 6위~10위 IT 서비스 업체의 성장률은 평균 마이너스 2.9%를 기록했다. 이보다 매출실적이 더 낮은 중견SI업체들의 올해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는 올 해 IT 서비스 시장에서의 각종 제휴와 M&A, 구조조정을 불러올 전망이다.

반면 지난 해 국내 기업용 SW시장은 2003년 1294억원보다 약 2.5% 성장한 1325억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IDC는 올해에는 2~3% 소폭 성장해 136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SW시장은 지난 해 특히 정부 주도 아래 두각을 나타낸 공개 SW 분야가 부각되었다. 보안시장은 침입방지시스템(IPS)과 스파이웨어 등 악성 코드를 제거하는 차세대 보안 솔루션 시장이 각광받으면서 3000억원대 시장을 형성했다. 또한 IPS 역시 단일 솔루션으로 지난 해 1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며 올해 역시 국내외 보안기

업의 최대 관심 제품으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 4. 반도체 및 부품

반도체 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수출 역군의 역할을 해 왔다. 그러한 까닭에 많은 경쟁국으로부터 견제를 받아 잠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지난 해에는 2003년의 두 배가 넘는 37%의 수출 신장세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회복했다. 특히 비메모리 산업이 급신장하면서 그동안 메모리 위주의 국내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까지 매출 43조7000억원, 순이익 8조9600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면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순이익도 지난해 5조9600억원의 두 배 이상이 확실해 보인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분투한 하이닉스도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공장 진출을 확정한 것을 비롯해 지난 10월 비메모리 부문의 시티그룹 벤처캐피털 매각 등을 통한 부채비율(70% 대) 감소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 부품 산업 중 지난 해 반도체의 뒤를 이어 가장 선전한 부품은 역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만년 2위의 설움을 딛고 숙적 일본을 따돌리고 명실공히 세계 1위로 올라서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TFT LCD의 경우 5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으며, 삼성전자가 2003년 대비 70% 가까이 늘어난 10조원, LG필립스LCD는 50% 가까이 증

<표> 국내 반도체 연도별 수출액 및 성장률

	1995	96	97	98	99	2000	01	02	03	04
수출액(억불)	177	152	174	170	189	260	143	166	195	270
성장률(%)	66	-14	14	-2	11	38	-45	17	17	38

※ 통계청, 삼성전자 추정

가한 8조원 후반대의 매출이 예상된다. 그러나 하반기 공급 과잉으로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30% 대에서 4분기에는 한 자리수 흑자 혹은 적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이 나와 업체에서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PDP는 올해 초 공급과잉 상태에 접어들면서 힘든 한 해를 보내야 했다. 42인치 SD급 PDP패널의 경우 올해 초 1300달러에 거래되던 것이 연말에는 800달러까지 하락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겪었다. 그러나 가격 하락으로 PDP 판매량은 급증, 올해 전 세계 PDP모듈 판매량은 지난 해에 비해 100% 가까이 늘어난 35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한 해 부품업계는 휴대폰·LCD·반도체 등 전방산업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카메라모듈·BLU·LED·FPC·2차전지·휴대폰케이스·LCD 모듈 등의 영역에서 큰 폭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에 1억달러 가까이 적자를 냈던 2차 전지 무역수지가 올해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도체·디스플레이 재료소재 분야는 반도체 경기 하강과 LCD 패널 가격 인하 등으로 지난 상반기까지의 빠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지는 못했다.

실제로 부품·소재업체 대부분이 지난 해 유가 상승에 따른 기초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제조 원가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공정 혁신, 납품가 인상 등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부품소재 업체가 대규모의 국내 직접 투자를 통해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 5. 정책 및 공공 부문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부흥을 책임지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이끄는 데 IT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IT신성장동력 산업을 발표한 이후 이를 보완하고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와 IT인프라 고도화를 전면에 내세운 IT839정책을 내놓는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시장 개선과 아울러 그동안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등 '디지털국력강화대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정보화촉진기금 수사로 인하여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집행은 위축되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기금 운용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 올 해에는 본격적인 정보통신 지원책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정부도 세계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2월 14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UN 경제사회국(UNDESA)과 미국 공공행정학회(ASPA)가 공동으로 19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수준을 계량화해 비교 평가한 '전자정부준비지수(E-government Readiness Index)'에서 0.8575점을 받아 세계 5위(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13위)보다 8단계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전자정부 강국의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

이번 평가는 그 동안 한국정부가 웹 서비스 분야에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G4C)을 특집기사로 다루어 한국의 대국민 서비스가 세계 최우수 사례에 속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미국은 작년에 이어 1위

를 유지하고 있고, 덴마크가 2위, 영국이 3위, 스웨덴이 4위로 평가됐으며, 싱가포르는 8위(아시아 2위)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디지털TV 전송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정통부와 방송위의 정책 협력도 가시화됐으며, 위성DMB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도 이뤄졌다.

갈등이 깊었던 만큼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갈등들이 차츰 해소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 II. 국민 소득 2만불을 이끌 IT산업의 과제

전체적인 IT산업을 살펴 보면 내수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초고속인터넷가입자 수 세

계 1위, 세계 최초 5백만 학생 디카를 장착한 휴대폰 개발, 세계 최초의 초대 화면 PDP TV 개발, 양산 등 IT 산업 전방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출에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염원이기도 한 국민 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젠 IT 산업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될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미래 IT 강국을 꿈꾸는 것은 단지 일장 춘몽이 될지도 모른다.

### 1. 원천기술의 부족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가지는 가장 큰 취약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원천 기술의 부족을 꼽을 것이다. 이미 생산 기술 및 품질 수준은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으나, 설계 기술과 원천기술은 해외 의존이 심하다.

정보통신 주요 품목의 로열티를 살펴 보면 휴

〈표 전자부품산업 무역 수지 현황〉

(단위:백만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수 출	26,029	32,229	19,251	22,240	26,189
수 입	20,552	25,168	19,597	21,982	26,532
수 지	5,477	7,061	-346	258	-343

자료: KOTIS, 2004. 3

〈주요 이동통신부품 국내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백만원, %)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FEM	4,500	9,000	55,680	71,000	90,500	115,400
휴대폰용 안테나(내장형)	150,000	117,090	97,500	85,000	91,200	94,500
카메라폰 모듈	-	154,000	120,000	109,200	156,000	201,600

자료: 한국전자산업 진흥회 실태조사, 2004. 4

대폰의 경우 5.25~5.75%, 디지털 TV는 10%, DVD P는 10~15%, 반도체 12%에 이른다.

또한 전자부품 소재 산업의 취약도 살펴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은 대기업 중심, 조립 가공 위주, 해외 기술 도입에만 신경을 쓰느라 부품 소재 산업에 소홀히 하면서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를 갖게 됐다. 국내 전자 산업의 수입 의존율이 60.7%(산업연구원, 2002년)에 달하는 것만 보더라도 시급히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몇몇 제품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2003년에는 1백억이 넘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30억불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원천기술 개발이 산업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려 주고 있다.

또 상품화 기술 부족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다양한 컨버전스 제품이 출현하면서 고객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는 데 비해 금형, 도금, 열처리 등 기초생산 기술 취약으로 최고 일류 상품 개발에 장애를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첨단 제품을 상용화해 놓고도 고부가가치 창출에 애로를 겪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이를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단기간 내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기술 개발과 동시에 시장수요에 적기 대응(Time to Market)하여 바로 상용화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개발 역량이 모자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첨단 부품·소재기업(특히 일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선진 부품소재 기술 및 인력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 2. 수출 편중

지금까지 IT수출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주며 미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주요 수출

품목이 반도체와 휴대폰 등 몇몇 품목에 편중돼 있어 환율 변동이나 세계 시장 수급 변동 등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한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반도체, 휴대폰, LCD 등 3대 품목 수출 비중이 총 수출의 21.8%, 전자 수출의 5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휴대폰의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함께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2.5세대에서 3세대로 무선통신 서비스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카메라폰, MP3폰 등 컨버전스형 다기능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수출이 급증하여 지난 해 IT수출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가 고유가 한파의 지속과 환율 전쟁으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여 수출 산업에 먹구름이 짙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나라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목된 바 있다. 가장 큰 예로 중국을 들 수 있다. 2003년부터 급속히 늘어난 중국 시장 진출은 그러나 어렵게도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공략이 쉽지 않았다. 오히려 그동안 사냥감으로만 생각했던 중국 시장은 오히려 지난 해 말에는 IBM의 PC부문 인수와 국내 게임업체 인수 등 오히려 사냥꾼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제 정보통신산업은 내수에만 의지하기에는 너무 몸집이 커져 버렸다. 이젠 다양한 제품의 경쟁력을 키워서 보다 넓은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하지만 무작정 기술력이 떨어진 시장이라고 공략하기보다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만만한 시장이란 없는 것이다.

## 3. 정보 윤리 문제

국내 인터넷 산업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의 주인공답게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 할 만큼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정상이란 오르기보다 지키기가 더욱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내 인터넷 산업에서는 지난 해 초 해킹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을 보였으며, 또 세계적으로도 골치를 앓고 있는 스팸 메일이나 스파이 웨어 등에 대한 문제와 정보윤리의 확립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 인터넷 역기능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핵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04 한국인터넷통계집'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 중 약 4.3%가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 군에 속하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도 16%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 세계 1위 인터넷 강국의 자리를 지키려면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중소기업 육성

현재 국내 IT 산업의 경우 대기업이 완제품 수출을 주도하고, 외국 기업이 핵심 부품소재를 수입하고, 저부가 가치·위탁 가공 사업은 국내 납품 중소기업이 맡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중소 부품·소재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에 따른 불합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실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환율이 요동치고 고유가 행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IT 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나서 확고한 금융정책과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이 같은 기업의 불안감을 덜어 줘야 한다. IT 기업 역시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미래 전략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 장 호

1963년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 학사)

1967년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석사)

1982년 :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83년 : 미국 하버드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1997년 :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2002년 9월 : 베트남 명예박사 (베트남 정부)

1963년 2월 ~ 1965년 : 학군단(ROTC) 1기

1968년 10월 : LG 그룹 기획조정실 일사

1978년 2월 ~ 1980년 2월 : 금성통신㈜ 이사

1980년 2월 ~ 1983년 2월 : LG상사 상무이사

1983년 2월 ~ 1984년 1월 : LG 그룹 기획조정실 전무 이사

1984년 1월 ~ 1989년 2월 : LG전자㈜ 전무 및 부사장 (해외사업)

1989년 2월 ~ 1990년 7월 : LG상사㈜ 부사장

1990년 7월 ~ 1997년 2월 : LG정보통신㈜ 대표이사 사장

1992년 2월 ~ 1996년 6월 : 한국 전파진흥협회 부회장

1993년 2월 ~ 1995년 2월 : (사)한국 정보통신 산업협회 회장(5대)

1994년 7월 ~ 1997년 7월 : 제2기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1995년 1월 ~ 1996년 12월 : 한국 통신학회 부회장

1996년 7월 ~ 1998년 9월 : LG텔레콤 대표이사 사장/부회장

1997년 1월 ~ 1998년 12월 : 한국 회계학회 부회장

1997년 8월 ~ 2000년 9월 : (재)한국 과학문화재단 이사

1998년 10월 ~ 1999.12월 : LG 경영개발원 부회장

1999년 3월 ~ 2001년 8월 : (주)신한은행 사외이사

1995년 7월 ~ 현 재 : (사)마루 음악연구원 이사장

1998년 2월 ~ 현 재 : (사)한국 정보통신 산업협회 회장(8/9/10대)

1999년 6월 ~ 현 재 : (학)고려중앙학원 감사

2000년 3월 ~ 2002년 12월 : 쓰시피마루 회장

2003년 1월 ~ 현 재 : 쓰마루홀딩스 회장

2004년 6월 ~ 현 재 : (학)고려중앙학원 이사